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식적인 건강 검진 불이익 우려 병 숨겨

소방관들이 쓰러진다

근무환경 열악... 광주·전남 10년간 12명 숨져

서울 은평소방서 소방관 3명이 나이트클럽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다음 날인 21일. 경력 5년차인 광주동부소방서 119구조대원 박형주 반장은 기침 때문에 눈을 찔다. 전남 두 곳의 화재현장에서 들이마셨던 시커먼 연기가 다음날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박 반장이 시커먼 가래를 내뿜으며 눈을 찔 시키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한 낮.

그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잠서 눈을 붙였었다.

“공기호흡기를 메고 들어가지만, 연기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과 밀착되지 않은 미세한 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고스란히 마실 수밖에 없죠.”

구조대원들이 화재현장을 다녀와서 빼먹지 않은 일이 휴지로 코를 후비는 것이다. 연기와 함께 콧속으로 들어온 시커먼 유독물질을 없애기 위해서다. 화장지에 물을 묻혀서 2~3차례 코를 후벼보지만 이미 기도를 통해서 들어간 연기는 해볼 도리가 없다.

호흡기 질환을 앓아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쉽지 않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병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도 일반 공무원들과 다를 바 없다. 최악의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호흡기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구조대원과 화재진압대원을 위한 위험한 근무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반면 구급대원들은 감염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도 고��받는다.

광주 모 소방서 구급대에서 근무중인 A씨는 지난해 후송환자에게 세균성 피부염이 옮겨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규정위반 등의 말을 들을까봐 관서에서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잔인한 범행 현장을 자주 보는 구급대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를 많이 받지만 전문적인 검진은 전무하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숨진 소방공무원만 광주·전남에서 10년간 12명에 달한다. 그러나 순직으로 인정돼 1계급 특진 추서를 받은 경우는 4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10년동안 204명의 소방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했다.

지난달 7일 근무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고 이철권 소방교(광주동부소방서 화은 119안전센터 근무)도 출동

대기 중이었다는 이유로 1계급 추서를 하지 않아 소방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광주시에 항의하기도 했었다.

한편 전남소방안전본부 소속 구조·구급·화재진압대원 전체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광주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일부 구급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김상훈 정신과 교수는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관들의 경우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다”며 “업무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현주기자 ahj@



소방공무원들이 낡은 장비와 24시간 맞교대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오후 광주동부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방부 납품 청탁’ 공범 여수서 체포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밤 유 전 고문의

공범인 한모씨를 여수에서 체포했다.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외곽 조직인 직능정책본

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을 지낸 한씨는 또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납품 청탁을 한 광주 소재 D통신 이모 대표와 유 전 고문을 연결해주고 5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연환수

키르기스스탄 경찰 서열 5위 한국인 수배 모른 채 경호차 귀국했다 체포

임모씨의 행적 | 광주서 사기 수배→해의 출국·결혼→경찰청장 수행 비서로

국내 벤처회사 대표 - 사기 혐의 수배 - 키르기스스탄 출국 - 현지 인과 결혼·경찰시험 합격 - 내무 장관 부인 수행 경찰로 귀국하다 체포.

사기 혐의의 수배된 사실을 모른 채 키르기스스탄에서 7년동안 생활하며 경찰 간부까지 오른 30대 최 한국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컴퓨터 관련 벤처회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후 가려온 혐의로 수배된 키르기스스탄 경찰관 임모(38)씨를 인천공항 경찰대로부터 인계받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광주서 복구 오치동 H벤처회사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조모(42)씨에게 “홍소핑

연결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해 2억원을 투자하게 하여 공동대표 양모(39)씨와 함께 가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참고인 조사만 받은 뒤 중부아시아의 오지 키르기스스탄으로 건너갔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선배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현지 여성과 지난 2004년 결혼한 뒤, 이듬해 키르기스스탄 국적까지 취득하고 이름도 ‘알렉산드르’로 바꿨다.

임씨는 지난 2007년 4월 경찰시험에 합격해 경찰청장 수행비서로 임명됐다. 우리나라로 치면 총경급에 경찰 서열 5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이어 키르기스스탄까지

이중국적을 취득했지만 그의 수배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선발돼 키르기스스탄 내무장관의 부인과 아들을 수행해 입국하려다가 지난 20일 인천공항 검문에서 신분이 확인돼 체포됐다.

임씨는 일단 광주북부서 사기건에 대해서는 21일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수배가 해제됐으나 서울서부지검에 또 다른 사기 혐의 수배사실이 또 검찰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내가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수배사실을 알았다면 귀국했겠다”라며 “당시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과는 오해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5·18 사진 삭제 ‘다음’, 항의받고 복원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이 광주의 한 대학생이 올린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사진과 글을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가 뒤늦게 복구했다. 사진과 글을 쓴 대학생은 ‘촛불집회 여대생 사망설’과 관련해 광고 게재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조선대생 김모(23)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첫 재정신청 1심서 무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1심 판결이 이뤄졌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 단독이정판사는 21일 윤모(54)씨의 재정신청을 통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부터 사문서 위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진 한국도로공사와 B건설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05년 4월 무안~광양간 고속도로 구간 중 자신의 아들 명의로 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소

김씨가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이렇게 잔인한 사진- 하살을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폭력 혐오 게시물’에 해당된다며 삭제했다가 재단 등의 항의를 받고 지난 19일 복원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5·18 당시 군인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폭행당하는 사진과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집회에서 경찰이 강경 진압했던 사실

을 비교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다음은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김씨는 이에 항의, 네티즌들도 격렬히 항의하며 김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으며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다음의 황포를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념재단은 다음 측에 “어떻게 5·18 사진이 미풍양속에 어긋나고 폭력 혐오 게시물에 해당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다음은 잘못을 인정, 삭제된 글을 공개하고 김씨에게 사과 메일을 전송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강필상기자 kps@

이사회 의결없이 지급 보증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21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채무 지급보증을 해주고 담보 물건의 감정가를 부풀려 부당 대출을 지시한 전 광주 A 새마을금고 이사장 노모(59)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고 명의로 정모씨 등에 5억1천만원 상당의 채무 지급보증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7589)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운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사 : 061) 337-0571

경찰 행세 유부남, 혼인빙자 돈 뜯어

○경찰관 행세를 하며 여자를 만나오던 30대 유부남이 사기 및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검찰청.

○순천경찰에 따르면 채모(39)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여·31)씨에게 “순천경찰서 강력 1팀장인데 조만간 이혼한 후에 결혼하겠다”라고 속여 사귀어 오다가, “순천지청 특수부 팀장으로 발령났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냈다는 것.

○채씨는 또 검찰청 직원 명함을 보여주며 “범인과 격투 중 다쳐 돈이 필요하다”며 A씨를 속였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고소해 결국 범행이 드러나 붙잡혔다.

○경찰은 유부남인 채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고 금품을 편취한 여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세상이 바뀌는 시대에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영 지도자 과정

중심강의: 경영 전략, 리더십, 조직 관리, 인사 관리, 마케팅 전략, 재무 관리, 법률 상담,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

스피치 리더십 과정

강사: 김영인(CEO)

문의: 010-9920-1234

인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 9월 7일

인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 9월 7일

인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 9월 7일

강사: 김영인(CEO)

문의: 010-9920-1234

인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 9월 7일

인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 9월 7일

인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 9월 7일

강사: 김영인(CEO)

문의: 010-9920-1234